

석차에만 관심

청소년연구원 '부모 자녀인식' 여론조사

성공위해 자유제한 필요 62% 진로선택 본인에 우선권 74%

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적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,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청소년연구원(원장 이윤구)이 최근 중·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천3백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부모의 자녀인식 정도'에서 96%의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선 잘 알고 있는 반면, 자녀의 교과지도(40.7%)나 자녀문제에 대한 교사와의 상담(44.8%) 등에는 소홀했다. 또 자녀의 담임교사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34%, 참고서 이름을 모르는 부모도 43.5%나 됐다.

75% 이상이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62%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청소년 세대에 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체벌에 대해 자녀교육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쪽이 67.7%, 설득해도 안될 땐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.1%로 집계됐다.

이는 실제로 매를 사용한 부

모가 72.5%, 자녀와의 의견 불일치를 대화로 해결해본 적이 있는 부모가 55%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체벌이 대화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이밖에 60%의 부모가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이 공부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, 자녀의 진로선택 문제에 대해선 74%가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보수적인 측면과 함께 개방적인 면도 나타났다.

청소년 성고민 으뜸

YMCA 상담사례 분석

서울, 부산, 춘천, 부천, 거창 등 9개 YMCA 청소년상담실은 84년부터 90년까지 7년동안 접수한 상담사례 2만4천여건의 내용을 분석·발표했다. 청소년들의 상담은 성에 관한 문제가 71%로 으뜸이었고, 그 다음은 학업, 진로관계, 교우관계 차례였다.

성에 관한 상담은 성기관, 임신, 출산 등 일반적 성지식에 관한 것이 19.8%, 자위행위 19.4%, 성심리나 욕구 9.4%, 이성관계 7.6%로 나타났다.